

# 제3회 119문화상 수상예정작 (동 화)



**공모 기간** 2021.6.1.(화) ~ 6.30.(수)

**참가 자격**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신인 또는 기성작가 참가 가능)  
※ 1인당 1점 출품 가능

**참가 방법** 온라인 접수 (119문화상 누리집 <http://119contest.fire.go.kr>)

**작품 소재**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한성 대화재 등)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소재로 한 작품

※ 단, 특별상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효과 및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 등을 소재로 한 작품

### 공모 분야

문학분야		미술분야		#특별상
동화	소설	상상화	기록화	수필
A4 6장 내외	A4 18장 내외	30호 40호		A4용지 4장 내외
		※ 휘화 분야로 손그림만 인정		

### 시상 내역

구분	미술 16점	문학 24점
대상 2점	대상 1점 (상금 300만원)	대상 1점 (상금 300만원)
금상 4점	상상화 1점, 기록화 1점 (각 150만원)	동화 1점, 소설 1점 (각 150만원)
은상 4점	상상화 1점, 기록화 1점 (각 100만원)	동화 1점, 소설 1점 (각 100만원)
동상 2점	부문통합 1점 (50만원)	부문통합 1점 (50만원)
특선 20점	부문통합 10점 (각 20만원)	부문통합 10점 (각 20만원)
특별상 8점	—	8점 (수필) 칭정상 4점 각 20만원 원정상 4점 각 20만원

### 추진 일정(예정)

▶ 결과발표 9월 중, 시상식 10월 중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소방청 (대변인실)

접수번호	15	제 목	성희의 미소
------	----	-----	--------

“아이고, 민영아, 어쩌면 좋니? 세상에, 저런…….”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에 불이 났대.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다는구나.”

엄마는 평소에 화재나 소방 관련 뉴스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신다. 아마도 예전에 우리 집에도 큰불이 나서 그러신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화재에서는 소방관이 순직하셨다니 더욱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닦으셨다. 나도 뉴스를 보며 엄마와 함께 안타까워했다.

그 후 두 달쯤 지났다. 학교에 갔는데 교실이 떠들썩했다.

“애들아, 들었니?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온대.”

5학년이 되어 처음 맞는 전학생 소식에 우리 반은 시끌벅적했다. 전학생이 오면, 매일 반복되는 학교생활에 신선한 기운이 더해지는 것 같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교실로 들어오셨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우리 반에 전학 온 김성희예요. 성희가 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교실을 한 번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저기 민영이 옆자리로 가서 앉으면 되겠구나.”

‘야호, 전학생이 내 옆자리라니…….’

나는 아주 기뻐다. 빨리 쉬는 시간이 되어 성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다.

성희가 자리에 앉아 수학 교과서와 필통을 꺼냈다. 나랑 똑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이었다.

“너도 이 캐릭터 좋아해?”

나도 똑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필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성희의 미소가 낮이 익었다.

‘어디서 봤을까?’

쉬는 시간이 되자 성희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다. 어느 학교에서 전학 왔는지,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지, 떡볶이는 매운맛 몇 단계를 좋아하는지, 집에 강아지는 키우는지…….

성희는 또 그 낮익은 미소를 지으며 나의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해주었다. 신기하게 우리 둘은 공통점이 정말 많았다. 성희랑 단짝이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희랑 나는 더 친해졌다. 우리는 좋아하는 게 비슷해서 진짜 말이 잘 통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할 때도 있었다. 어떤 날은 미리 짠 것처럼 위아래 모두 같은 색 옷을 입고 와서 친구들이 쌍둥이나고 놀리기까지 했다. 우정 팔찌도 맞췄다. 학교에서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도,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채팅하다가 잠들기도 했다. 나는 성희가 참 좋다. 특히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그 미소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감사하는 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준비해 온 사람은 발표 전에 USB를 미리 내주세요. 자,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발표 순서를 정해 주셨다.

내 차례가 되어 교실 앞으로 나갔다. 나는 먼저, 준비해 온 소방차 장난감을 교탁 위에 꺼내 놓았다.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는 다섯 살 때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소방관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엄마가 잠깐 슈퍼에 가시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사실 저는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도착한 다음부터만 기억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슈퍼에서 돌아오는데 소방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 집 쪽으로 지나가는 걸 보셨대요. 엄마도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시고 우리 집이 아니길 바라며 서둘러 집으로 가셨대요. 집 앞 골목에서는 소방차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소방관들은 호스를 꺼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대요.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무언가 ping ping 터지고,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엄마가 집 안에 아이가 있다고 소리치자 소방관들은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잠시 후 한 소방관이 의식이 없는 저를 안고 나오셨고, 저는 구급차에 실려 바로 병원으로 보내졌대요. 구급차에서 의식이 돌아왔다고 엄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내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교실은 아주 조용했다. 나는 발표를 계속 이어나갔다.

“저녁에 병원에서 엄마랑 TV를 봤어요. 뉴스에 우리 빌라 화재 사건이 나왔어요. 한 소방관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바로 저를 안고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나는 선생님께 미리 제출한 영상자료를 클릭했다.

“아이가 있다는 무전을 듣고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도 한 아

이의 아버지로서 꼭 구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몇 번, 아니 몇십 번이나 봤던 인터뷰 영상인데 다시 봐도 너무 몽클했다. 특히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인자한 미소는 눈을 감아도 생각났다.

“소방관님도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지만, 자신의 화상보다 저를 먼저 걱정하셨어요. 다음 날 제가 있는 병원에 오셔서 제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고, 이 장난감 소방차도 주시고 가셨어요.”

나는 발표 시작 전에 교탁에 놓은 장난감 소방차를 높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소방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자리로 돌아오면서 성희랑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성희 눈이 빨갛다. 눈물이 맺힌 거 같기도 했는데 성희가 얼른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내 발표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며칠 후, 성희가 학교 끝나고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고 했다. 성희네 집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다. 성희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다. 집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가족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성희랑 성희 엄마랑 성희 아빠가 계셨는데…….

나는 성희네 가족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뉴스에 나온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찾아보아서 분명히 기억한다. 나를 구해준 그 소방관이셨다.

“성희야, 이분이 너희 아빠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가 대답했다.

“응.”

“그럼 지난번 창체 시간에 내가 발표했을 때 알고 그분이 너희 아빠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정말 인연이 있나 봐. 정말 신기하다, 성희야.”

그런데 성희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성희가 웃을 때마다 굉장히 낮이 익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소방관님의 미소와 닮아서 그런 거였구나! 이제야 생각이 나다니…….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꼭

구하고 싶었다는 인터뷰에서 ‘한 아이’가 바로 성희였어!’

“성희야, 나 너희 아빠 만나게 해주라.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큰 거 보면 너희 아빠가 깜짝 놀라시겠다, 그치?”

성희는 이상하게 한참이나 망설이더니 내게 물었다.

“정말 꼭 만나고 싶니?”

“당연하지.”

성희는 진짜 만나고 싶은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다.

“그럼 주말에 같이 우리 아빠한테 가자.”

집에 돌아와 엄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어머, 어쩜 그런 인연이 있다니? 성희 아빠 만나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엄마도 소방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성희 아빠를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흥분이 되었다. 나는 제일 예쁜 편지지를 골라 성희 아빠에게 드릴 편지를 썼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다.

엄마가 성희 아빠께 드리라고 직접 만든 쿠키도 포장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랑 예전에 아저씨가 주신 장난감 소방차도 챙겼다. 성희네 아파트 정문에서 성희를 만났다.

“민영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아저씨가 일하시는 소방서가 좀 먼가 보구나?”

성희 아파트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107번 버스를 탔다. 20분쯤 지났을까? 버스에서 방송에 나왔다.

“이번 정류소는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This stop is…….”

성희가 말했다.

“이제 내려야 돼.”

‘국립현충원? 왜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 성희를 따라 걸었다. 성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성희는 한참을 가다가 어느 묘비 앞에 멈춰 섰다.

“여기야, 우리 아빠 계신 곳.”

묘비에는 “소방위 김은준의 묘”라고 쓰여 있었다.

“아빠는 몇 달 전에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 화재 진압에 나가셨다가 돌아가셨어.”

그 화재, 기억난다. 엄마랑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 화재 사건. 그래, 그때 순직하신 소방관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성희 아빠시라니, 나는 무슨 말을 해

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게 있었다.

묘비 앞에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액자를 집어 들었다. 액자 속에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들 돌보아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감싸 안은 아이가 나왔구나.’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내가 울면 성희가 더 슬플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성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너랑 나를 이어주신 것 같아.”

성희는 눈물이 그렇그렇한 채 나를 향해 살포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아저씨의 인자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접수번호	37	제 목	거인 소방관
------	----	-----	--------

“야, 땅콩!”

또 시작이었습니다. 백호는 쉬는 시간만 되면 윤후를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다음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빵을 사 오라고 시키거나 체육복을 빌려오라고 하는 등,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윤후는 백호가 자신을 ‘땅콩’ 이라고 부르는 것도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백호는 호랑이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언제든지 먹잇감을 낚아챌 준비가 된 날쌔고 무서운 호랑이였죠. 저 이빨에 물리면 온몸에 상흔이 평생 남는 걸 잘 알기에 윤후는 군말 없이 백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박형태랑 키 좀 재 봐. 누가 더 큰지 보자. 그래봤자 도긴개긴이겠지만.”

형태는 며칠 전 전학 온 아이였습니다. 윤후는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아 별명이 ‘땅콩’ 이었는데, 새로 온 형태라는 녀석도 키가 작아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윤후는 쭈뼛쭈뼛 걸어가 형태의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마주댄 형태의 등이 진득거렸습니다.

“둘 좀 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백호는 뭐가 웃기는지 숨이 넘어갈 듯 꺾꺾거리며 포복절도했습니다. 윤후는 냉큼 밖으로 달음질을 치고 싶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미지의 세계로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녀석에게만큼은 잘 보이고 싶었는데...’

윤후는 눈가가 시큰하게 달아올랐지만, 얼른 다른 생각을 하며 눈물을 꼭 참았습니다. 땅콩에 울보라는 별명을 더하기는 싫었으니까요. 다행히 수업 종이 울렸고,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던 백호는 할 수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수업은 국어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꿈’ 에 관한 단편소설을 읽고 난 뒤, 각자의 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발표해 볼 사람?”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일어선 백호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유도선수가 될 거예요!”

마치 산속에서 외치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찌렁찌렁했고, 계속해서 메아리쳤습니다. 순간 윤후는 유도선수가 된 백호가 자신을 엿어치기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후의 살갓에 오돌토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다음, 아직 발표 안 한 사람?”

모두의 시선이 윤후에게 옮겨졌습니다. 윤후를 제외한 아이들은 전부 꿈에 대해 발표했지만, 윤후 홀로 쥐죽은 듯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운

후의 이름을 세 차례나 불렀을 때야 윤후가 축 처진 어깨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윤후, 꿈은 뭐니?”

“...소방관이요.”

잔뜩 풀죽은 윤후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백호의 킁킁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손으로 교탁을 한번 내리치더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웃는 건 나쁜 행동이야. 알겠니?”

“네.”

하지만 윤후는 저 대답이 잠시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랑 하늘에 노을이 짙어졌습니다. 아무렇게나 그어진 주황색 사선들은 점점 윤후의 눈가처럼 번져갔습니다. 윤후는 괜히 모래를 발로 획획! 차며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괜찮아?”

그때였습니다. 언제부터 뒤따라온 건지 형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후 곁에 섰습니다. 윤후는 인상을 푹 찌푸렸습니다. 형태에게만은 자신이 백호가 된 것처럼 어깨를 짝 편 채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날 미행한 거야?”

“여기는 학교 운동장이야. 다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형태의 말에 윤후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괜히 눈썹만 실룩거리며 형태를 노려보다 앞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쭉날쭉했던 그림자는 어느새 나란해졌습니다. 형태는 윤후의 곁을 계속 따라 걸었습니다.

“왜 자꾸 따라와?”

“우리 집은 네 뒷집이야. 가는 길이 한 개뿐이라서 어쩔 수 없어.”

“쳇! 너도 내가 우습지?”

힐끗 가자미눈으로 형태를 훑쳐보며 묻는 윤후의 질문에 형태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전혀.”

“거짓말.”

“거짓말 아닌데? 난 네 꿈이 멋있다고 생각해.”

윤후는 입술을 썩룩거렸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서 시꺼먼 연기가 술술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윤후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발이 움직였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는 윤후를 보던 형태가 금붕어처럼 입술을 빼꼼거리다 이내 윤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단지였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모든 걸 잡아 삼킬 듯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1초 만에 제 몸을 수십 배 불렀습니다. 불난 걸 처음 보는 형태는 몸이 석고상처



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떡 벌어진 채 하늘로 치솟는 연기와 창밖으로 나가려 온 힘을 쓰는 불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상상했던 장면이지만, 막상 무섭게 손을 뺀 불길 앞에선 뉘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은, 백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녀석이자 잔인한 괴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불 앞에선 모두 발만 동동 굴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장창 창문 깨지는 소리,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숨 막히는 연기와 퀴퀴한 냄새, 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 조력자로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시켰습니다. 윤후의 관자놀이로 땀방울이 쭉 타고 내릴 때, 갑자기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윤후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됐다!’

빨간색 소방차가 연달아 들어서더니, 소방관들이 빛의 속도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지체할 틈 없이 팀을 나눠 한 팀은 내부로 들어갔고, 또 다른 팀은 소방호스를 쥐고 성난 불길을 향해 쏘았습니다. 잠시 후 영원히 타오를 것만 같던 불길이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곳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마주 본 서로의 얼굴은 어느새 시꺼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거울삼아 소매로 얼굴을 쓱쓱 문질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겠지?”

“응. 아까 빈집이라고 했어.”

“다행이네.”

웬지 윤후의 얼굴이 소방차에서 내리던 소방관처럼 늙름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치기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면 전소는 아니야. 연기가 많이 났을 뿐 다행히 전체가 타 버리진 않았어. 너, 화재의 4대 요소가 뭔지 알아?”

“그게 뭔데?”

“산소, 가연물, 열, 화학적 연쇄반응이야. 이 4대 요소가 결합 돼서 연소가 시작되는 거지.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던 이유는 아까 집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들 있지?”

“응.”

“그 소방관들이 빠르게 화점을 찾아 진압했기 때문이야.”

“너 진짜 멋있다!”

“그럼 뭐해? 난 소방관이 될 수 없는데.”

“왜?”

“키가 작잖아.”

“소방관이랑 키 작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까 맨 앞서서 들어가는 소방관 아저씨도 키가 작던걸? 하지만 그 무서운 불을 제압하는 모습은 거인 같았어. 마치 아무리 큰불이 와도 내가 다 상대해 주마! 하는 것처럼 포스가 넘쳤다고. 키는 소방관이 되는 거랑 아무 상관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작은 키 때문에 소방관이라는 꿈마저 놀림감이 될까 싶어 늘 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형태의 말은 운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운후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주변인 운후가 제일 먼저 등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칠판지우개를 털고, 교탁을 닦았습니다. 곧이어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며 뒷문이 열렸습니다. 백호와 그 친구들은 가방을 땡개치더니 사물함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디에선가 꺾어온 나뭇가지를 칠판 위에 한데 모은 다음, 백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냅니다. 운후는 라이터에 불꽃을 보는 순간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걸레질만 벅벅 해했습니다. 잠시 후 매캐한 연기와 함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마시멜로 좀 줘 봐. 구워 먹어 보자.”

나무 꼬챙이에 마시멜로를 끼우더니 킬킬거리며 굽기 시작했습니다. 말캉말캉하고 부드러운 마시멜로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백호는 불이 부족하다며 쌓여있던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저기...”

“뭐야?”

백호가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운후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불붙으면 큰일 나. 위험해.”

“신경 꺼!”

운후가 고개를 숙이고, 백호가 다시 꼬챙이를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불꽃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불꽃이 붙었습니다. 놀란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불꽃을 팡팡! 밟았으나 불꽃은 또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라운드 끝에 백호의 바짓자락에 한 녀석이 붙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야! 도와줘!”

“으아아악!”

하지만 백호의 친구들은 서둘러 백호의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운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도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운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권! 넌 119에 신고하고, 박태구 너는 선생님 모셔와!”

윤후의 지시에 목석같이 서 있던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후는 후다닥 달려가 구석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결연한 윤후의 눈빛과 달리, 달리 다리는 덜덜 떨렸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도망쳐 버린다면 백호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윤후는 입술을 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 때 배웠던 소화기 사용법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먼저 소화기를 짹 잡고 안전핀을 푼다.’

안전핀을 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등진 채 호스를 쥐었습니다. 윤후의 머릿속엔 어제 불이났던 주택으로 들어가던 용감한 소방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키가 작은 것과 커다란 불을 끄는 건 아무 상관 없다는 형태의 말도 힘이 됐습니다. 그러자 손잡이를 더욱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분말이 불을 덮을 수 있게 쓸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분말이 쓸고 간 자리에 타오를 준비를 하던 불꽃은 자취를 감춥니다. 대신 타버린 장작과 바닥에 누운 채 울먹이는 백호만 보였습니다. 백호는 불이 꺼지자 더욱더 크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것만 같이 놀란 울음이었습니다.

그 사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윤후가 전투에서 승리한 소화기를 탁! 바닥에 내려놓자 신호탄이라도 되는 듯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백호를 번쩍 들어 올리고 총알처럼 튀어 나갔습니다.

사라진 백호는 오전 내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후는 혹시 백호가 많이 다친 건 아닌지 너무 걱정했습니다. 입맛도 없어 점심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5교시가 시작될 무렵 마침내 백호가 돌아왔습니다. 불꽃이 붙었던 오른쪽 다리에 붕대가 감긴 채로 말이죠. 백호와 눈이 마주치자 윤후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책상 서랍 안에 손을 넣고 꿈지락거리며 책을 꺼내는 척하는데, 커다란 그림자가 옆에 섰습니다. 윤후가 고개를 위로 올리자, 다시 호랑이로 돌아온 백호가 비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3주면 낫는데. 흉터도 안 남는다고 했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백호는 윤후의 속마음을 아는지 먼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가만히 경청하고 있는 윤후를 보며 쭈뼛거리던 백호는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까 너 멋있더라. 꼭 진짜 소방관 같았어.”

윤후는 눈썹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 같은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윤후는 짹 쥔 주먹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땅콩이라고 하지 마.”

“...”

“그리고 박형태도 괴롭히지 마. 그냥, 우리 반 아무도 괴롭히지 말아줘.”

윤후의 갑작스러운 말에 반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바닥으로 깔고 굴렀습니다. 윤후는 내뱉은 말과 달리 심장이 쿵닥쿵닥 뛰었습니다. 여차하면 날아올 백호의 주먹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특 말을 내뱉은 백호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반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듯 안달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환하게 웃는 건 형태였습니다. 형태는 윤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추어올렸습니다.

윤후는 두려움에 쿵닥거리던 심장이 용기로 변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슴속에 품어도 된다는 것어요. 작은 키는 더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후는 마음속에 타오르는 용기와 희망의 불꽃을 잘 지켜, 어떤 불도 거뜬하게 제압하는 거인 소방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접수번호	142	제 목	아빠! 미안해
------	-----	-----	---------

공교롭게도 유진이 꽤거리와 하룻길이 겹쳤다.

“너희 이번에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 아저씨 얼굴 봤어?”

유진이 말에 귀가 쫑긋 섰다.

“아, 맛나 떡볶이? 주말에 엄마랑 갔는데 거기 떡볶이 맛있더라. 근데 아저씨가 왜?”

유진이 말이라면 무조건 맞장구치는 현지가 물었다.

“췌!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살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고쳐 쓰는 걸 봤는데, 얼굴에 무시무시한 흉터가 있었어.”

유진이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헉! 정말이야? 웬일이니, 웬일이니!”

현지가 호들갑을 떨었다.

“다치면 흉터가 생길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수아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자 유진이가 혀를 끝끝 찼다.

“쫄쫄. 하여간 수아는 뭘 모른다니까. 그 흉터는 분명 엄청난 범죄 조직에 있다가 다친 게 틀림없어. 범죄 영화 보면 얼굴에 흉터 있는 조폭들 나오잖아. 아저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도 아마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가 그랬을걸?”

“으! 나 이제 그 떡볶이 가게 못 가겠다. 무서워.”

현지가 소름 돋는다는 듯 팔을 문질러 대며 말했다.

두어 걸음 뒤에서 걷는 내 가슴에 쿵! 커다란 바윗돌이 얹혀졌다. 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오 학년이 되면서 친하던 아이들과 헤어져 나 혼자 삼 반이 되었다. 회장 선거에서 내가 회장이 된 후로 선거에 떨어진 유진이와 그 꽤거리들은 내게 못마땅한 티를 내곤 했다.

느리게 걸었지만 어느새 맛나 떡볶이가 보였다. 유진이 꽤거리가 병균이라도 옮을 것처럼 가게 안을 힐끗거리며 지나고 있었다.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를 졸랐다.

“엄마,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은 아닌 것 같지 않아? 응? 중학교 앞으로 가게 옮기면 장사 더 잘 될 거야.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용돈도 더 많이 받고,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잖아.”

“가게 문 연 지 얼마나 됐다고 옮겨?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몰라! 아빠가 떡볶이 파는 거 정말 보기 싫단 말이야!”

“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몰라! 됐어! 다 싫어!”

황! 방문을 세계 닫았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앞치마를 매고 있는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

다음 날, 아빠와 마주치기가 싫어서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갔다. 아빠가 쉬는 날이면 함께 달리기하던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다. 예전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아빠랑 달리는 게 싫

다. 사람들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달리는 아빠를 흘끗거리다 못해 대놓고 본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기까지 한다. 어떤 할머니는 어쩌다 다리를 절게 되었냐며 오지랖 넓은 소리를 했다. 아빠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아빠를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낯설고 불편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다고 안내해 주셨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해준다고 한다.

오 학년 전체가 강당에 모여서 심폐소생술 동영상 시청했다.

“에이, 시시해. 저런 건 유튜브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준영이가 작게 투덜거렸다.

“야, 한준영. 조용히 하고 봐라.”

유진이가 신경질적으로 준영이를 째려보았다.

“헐! 너 뭐냐. 네가 뭘데 조용히 하라 마라야?”

“심정지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 몰라? 조용히 좀 보라고!”

잔뜩 힘이 들어간 유진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서인지, 담임 선생님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주의를 주신 탓인지 준영이도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 동영상 잘 시청했죠? 회장단부터 연습해 볼까요?”

강당 무대에 선 구급지도관님이 말씀하셨다.

작년에 아빠한테 심폐소생술을 배운 게 떠올랐다.

“은빈아, 아빠는 우리 은빈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어.”

“헤헤. 그럼 나도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돼야지.”

아빠가 내 머리를 헝클며 웃었다. 하얀 이를 가지런히 드러낸 아빠의 양 볼에 보조개가 났다. 내 기억에만 남아 있는 아빠의 웃음이다. 이제 아빠는 더는 그렇게 웃을 수 없으니까.

강당 무대에 올라가 바닥에 놓인 모형의 옆구리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모형의 가슴 위에 왼손 손꿈치를 대고 오른손을 왼손 위로 포개 손가락 각지를 껴다.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에 온 힘을 모았다. 몸을 모형 위로 거의 엎다시피 기울여 하나, 둘, 힘껏 가슴을 압박했다. 무대 바닥에 놓인 모형을 살려내기라도 할 것처럼.

“와! 바로 구급대원으로 투입해도 손색이 없겠군요. 가운데에 있는 여학생, 심폐소생술 자세가 아주 정확하고 훌륭했어요. 골든아워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겠는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구급지도관님의 칭찬에 아빠의 웃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지만, 머리를 흔들며 몰아냈다.

“그럼 이번엔 실습을 해 보고 싶은 학생들 신청하세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유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었다.

“하여간에, 강유진 나서는 건 알아줘야 해.”

내 옆에 앉은 연주가 작은 소리로 비아냥거렸지만 웬일인지 유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몇 명이 무대에 올랐다. 바닥에 놓인 모형 옆으로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자

리를 잡고 일제히 움직였다. 팔꿈치를 곧게 펴 힘껏 모형을 누르는 모습들이 진지했다.

그중에서도 유진이는 누구보다 힘차게 가슴 압박을 했다. 유진이가 힘껏 누를 때마다 까만 단발머리가 시계추처럼 빠르게 흔들거렸다. 유진이가 모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마치 모형이 유진이를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젠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여간 튀고 싶은 건 못 말려.”

연주가 동의를 구하듯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어설피게 웃었다. 유진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싶지 않았다.

급식 메뉴에 떡볶이가 나왔다. 폭 퍼진 떡볶이를 보니 먹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다. 아빠가 만든 떡볶이가 생각났다. 아빠 떡볶이는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국물이 포인트다. 숟가락으로 밀떡 한 조각과 국물을 함께 떠서 입에 넣으면 배시시 웃음이 나온다. 웃느라 벌어진 입술 사이로 피를 흘리는 드라클라처럼 빨간 국물이 흘러도 모를 만큼.

하지만 절대로 아빠 가게엔 가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아빠 표 떡볶이는 그림의 떡이다.

급식을 대충 먹고 화장실 칸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현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급식 정말 맛없다. 특히 떡볶이. 떡볶이는 맛나 떡볶이가 최곤데…….”

“어우, 야! 너는 조폭 떡볶이가 뭐가 맛있다고 그래. 거기에다 마약이라도 넣었는지 누가 아니?”

유진이의 말에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획! 화장실 문을 거칠게 당겨 열고 나갔다.

“야! 강유진! 네가 떡볶이에 뭘 넣는지 봤어? 아저씨가 조폭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야? 웬 참견?”

“네가 봤어? 봤냐고? 어디서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나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유진이 어깨를 세계 밀었다. 바닥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웠던지 유진이가 휘청하더니 엉덩방아를 찧었다.

“야, 너 미쳤어? 왜 가만있는 사람을 밀고 그래?”

현지와 수아가 말렸지만 일어서려는 유진이를 한 번 더 밀었다.

“김은빈, 너 돌았어?”

유진이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네가 봤냐고? 우리 아빠가 마약을 넣는지 뭘 넣는지 봤어? 어디서 함부로 말하고 다녀!”

순간 아이들이 얼음처럼 굳었다. 자존심 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다. 빨개진 눈을 들킬까 봐 세계 화장실 문을 닫으며 나와 버렸다.

어떻게 수업이 끝났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유진이가 먼저 잘못된 건데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

학원에 가지 않고 휴대폰 전원도 끈 채로 한참을 돌아다녔다.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고 거리에 하나둘 불이 들어왔다. 분명 밝고 환한 불빛들인데 차가운 입김을 내뿜는 듯 서늘하게 느

껴졌다.

횡단보도 앞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렸다. 사이를 비집고 들여다보니 한 아저씨가 쓰러져 있고 여자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놀랍게도 여자아이는 유진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아저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반응이 없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아저씨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줌마를 불렀다.

“과란 치마 입은 아줌마,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빠는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정신없이 가슴을 눌러 댔다. 아빠가 힘차게 구령을 붙여 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심폐소생술 연습을 하고 팔이 후들거린다고 엄살을 부리자 팔 마사지를 해주던 아빠가 떠올랐다.

구급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길을 터 주니 낮익은 주황색 옷이 보였다. 그제야 맥이 풀린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어? 너 은빈이 아니니?”

구급대원 아저씨가 나를 보고 알은체를 하셨다.

“정말 잘했다. 네 덕분에 골든아워를 벌었어.”

“네. 아, 안녕히 가…….”

얼이 빠진 내가 인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에 구급대원 아저씨는 유진이와 유진이 아빠를 태우고 서둘러 떠났다.

다음 날, 학교 정문 앞에 유진이가 서 있었다. 내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고마워, 은빈아. 네 덕분에 우리 아빠 살았어. 부정맥이 있어서 늘 걱정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거든. 흑흑! 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했어.”

“괜, 괜찮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뭐지? 이런 순간에 이렇게 판에 박힌 말이 나오다니. 어색해서 우물쭈물하는데, 다행히 유진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은빈아, 미안해. 너희 아빠 소방관이셨다며. 어제 구급대원 아저씨가 얘기해 주셨어.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그때 얼굴에도 화상을 입으시고.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지어내서 정말 미안해.”

유진이가 내게 사과를 했다. 불편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유진아, 나랑 같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나갈래? 우리 아빠가 진짜 잘 가르쳐주시거든.”

유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살포시 유진이 손을 잡았다. 유진이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이제 나도 아빠에게 사과할 차례다.



‘아빠,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사실은 아빠가 평생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접은 것 같아서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아빠 꿈 이어서 갈게. 아빠는 나의 영원한 우상이야.’

접수번호	169	제 목	아빠가 보고 싶으면
------	-----	-----	------------

“안! 전!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장 이윤철입니다. 오늘, 장준건 소방경께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오시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이 시간에는 응급상황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화재 방지 및 대피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응급상황 대처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 삼촌이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고 우리도 따라서 안전, 하고 외치며 수업이 끝났다. 삼촌이 전화로 알려줬지만 119가 새겨진 주황색 근무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삼촌을 학교에서 만나니 좋았다. 물론 아빠가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삼촌이 아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 아빠는 정말 바쁜 소방관이니까.

“삼촌!”

“안전! 승하야! 오늘 삼촌 어땠어? 네 아빠께 칭찬받으려고 삼촌 엄청 열심히 준비했다. 잘했지?”

교육이 끝나고 강당을 나가는 삼촌을 따라 쫓아갔다.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는 듯 서 있는 삼촌을 만났고 우리는 하이파이브로 우리끼리의 인사를 나눴다. 삼촌이 어깨를 들썩이며 더 멋진 척을 해서 웃겼지만, 친구들 앞이라 내 어깨도 으쓱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정말 좋았다.

우리 아빠가 장준건 소방관이다. 학교에서 소방교육 할 때 아빠가 오기로 했으면서 아빠는 급하게 미국에 공부하러 가느라 못 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빠는 자주 야간 근무를 했고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면 아빠와 야구를 하러 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게다가 우리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빠가 없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신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빠를 한동안 못 만나는 것도 깜빡 잊었다.

할아버지 집에는 아지가 있다. 토요일 오후, 주말 체육 교실에서 축구를 실컷 하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면, 나는 할아버지와 아지를 데리고 호수 공원 산책을 하러 갔다. 시츄 종인 강아지 아지는 태어난지 1년이 안 된 꼬마 강아지였지만 할아버지의 훈련으로 똑똑했고, 귀여운 데다 나를 아주 좋아해서 우리는 같은 침대를 쓰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아지랑 사는 게 소원이던 나는 아빠가 자주 생각났고 보고 싶었지만 아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정말 몰랐다.

멋진 아들 승하에게. 승하 어떻게 지내니? 엄마랑 아침마다 등교 준비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저녁마다 숙제며 공부하느라 툭툭거리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웃으며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아빠? 아빠도 잘 지낸다. 여기 뉴욕은 사건 사고가 잦아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소방학교의 훈련은 힘들지만

배울 점이 많아. 아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도 그래 줄 수 있지? 너는 아빠처럼 뭐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아이잖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를 부탁한다. 사랑해. 아빠가.

크리스마스쯤이었다. 내가 어린이집 우편함에 와 있는 아빠의 편지를 발견했다. 영어로 쓰인 주소는 읽을 수 없었지만 장준건, 아빠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정확하게 한글로 적혀 있었다. 엄마, 엄마! 아빠한테 편지 왔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아빠의 편지에 들뜬 마음으로 엄마에게 달려갔는데 편지를 받아든 엄마는 폴짝 주저앉으며 나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꽤 오랫동안 엄마는 울었다. 나중에 엄마가 말해줬는데 너무 기뻐도 울 수 있다고 했다. 정말? 그렇지만 정말 몰랐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는 편지를 보내왔다. 가끔 소방복을 멋지게 입고 찍은 아빠의 사진도 들어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내 방에 붙여놓고 답장을 썼다.

보고 싶은 아빠께. 아빠! 아빠 아들 장승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지랑 할 아버지 댁에서 재밌게 놀면서 학교도 잘 다니고, 주말에는 할아버지랑 등산도 가고, 윤철 삼촌이랑 주하랑 캠핑도 가요. 주하는 자기 아빠 말은 안 듣고 형아인 내 말만 잘 들으니 가끔은 귀찮은데, 그래도 캠핑은 좋아요. 나랑 엄마랑 아빠랑 잠들던 텐트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놀러 가는 것처럼 캠핑이 좋아요. 아빠가 올 때까지 삼촌이랑 주하랑 재밌게 캠핑 다닐게요.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또 편지 쓸게요. 장승하 올림.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었다. 우리 집이던 103호가 어린이집이 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어린이집으로 엄마 차를 타고 가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퇴근하면 함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린 1학년이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었을 때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119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하는 소방교육에 윤철 삼촌이 또 아빠 대신 왔다. 아빠의 편지는 벌써 서른 통이 넘었다.

“야, 장승하! 너희 아빠 아직도 안 오셨다며? 미국에 계신 건 맞아? 미국에서 혹시 빵, 당하신 건 아니지? 푸하하!”

빵, 하면서 손으로 권총 모양을 만드는 성준이를 향해 나쁜 자식, 하면서 힘껏 주먹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빠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로 편지로 약속했다.

하지만 5학년이 되고 나서 나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게 핸드폰이 생겼다고 아빠께 번호를 알려 줬지만, 아빠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뉴욕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아빠가 저녁 7시쯤 퇴근해서 내게 전화를 하면 내가 학교 가기 전 아침에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빠는 몰랐던 것일까. 주말에도 내 핸드폰은 조용했다. 나는 왜 한 번도 아빠랑 통화한 적이 없었을까? 왜 몰랐을까?

아빠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멋진 아들 승하에게. 승하야, 네 편지 잘 받았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승하가 잘 견뎌내며 씩씩하게 자라 준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믿음직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 고맙고, 고맙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되겠구나. 6월 6일에 대전 현충원에서 만나자. 너는 자랑스러운 장준건의 아들 장승하다. 사랑한다. 승하야.

사실은 내가 좀 못된 아이처럼 아빠에게 편지를 썼었다. 성준이가 빵, 하고 손으로 권총 모양을 만들어 내게 쏘는 시늉을 한 그날이었다. 아빠는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느냐, 뉴욕 생활이 그렇게 좋으냐, 나랑 엄마랑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느냐, 나도 아빠랑 등산 가고, 아빠랑 캠핑 가고 싶다, 나를 사랑하면 돌아와 달라, 자꾸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썼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한국으로 오신다는 답장이 온 것이다. 진짜, 진짜 진짜 좋았다. 돌아오시는 줄 알았다.

“일동 장준건 소방경께 경례! 안, 전!”

대전 현충원에 들어서는 순간 낮설지 않았다. 책에서 봤나, 하고 생각했다. 회색의 묘비들 틈을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까만 소방관 제복을 입고 모자까지 쓴 윤철 삼촌과 아는 삼촌 몇 명이 줄지어 서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다. 아빠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자는 엄마의 말에 예쁜 꽃다발까지 준비해온 나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얼음처럼 가만 서고 말았다. 엄마와 할머니의 눈이 별게져 있었고, 말 못 할 무엇인가를 힘껏 참고 있는 할아버지의 눈과 마주치자 할아버지는 나를 꼬옥 안으셨다.

소방경 장준건의 묘. 2017년 6월 29일 순직. 내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순직?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미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서서 주인공이 아빠의 영정사진을 든 채 영영 울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내 기억 속에 있다. 동화책의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였다.

여덟 살 승하, 죽음의 의미를 알기에 너무 어렸다.

아빠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어 있던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다. 함께 출동해서 물살에 휩쓸린 윤철 삼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아빠의 구명조끼는 구조를 요청한 가족의 막내가 입고 있었다. 사흘 만에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윤철 삼촌은 아빠의 순직을 듣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어린이 병동에 입원한 나를 보고 나서야 그쳤다. 나는 신경성 장염이었다. 게다가 트라우마로 인한 단기기억상실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안정이 요구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지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지 못

했고 자꾸 아빠를 찾았다. 그래서 아빠는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이 되었다. 그때부터 윤철 삼촌은 내 병실로 찾아와 아빠와 함께한 화재출동, 구급출동, 산악출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영웅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삼촌은 아빠의 필체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크리스마스쯤부터 내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게 아빠 대신이 되어주는 것으로 윤철 삼촌은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을 극복해나갔다.

아빠의 묘지 앞에 엄마와 둘이 남았을 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 내 가슴을 후볐다. 눈물 따위가 자꾸 흘렀지만 내 슬픔이 방울방울 흐르지 않는 게 분명했다. 나는 울어도 울어도 아팠다. 안아주는 엄마 품이 따뜻해서 아빠가 더 그리웠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지를 안고 울다가 잠드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당에 있던 아지가 없다는 할머니의 말에 놀라서 뛰쳐나가기 전까지 나는 일주일째 현관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온 동네를 뒤져서 찾아낸 아지는 어느 집 대문간에 웅크리고 앉아 그 집 마당에서 꼬리를 흔드는 개를 바라보며 꼬리만 출렁이고 있었다. 아지가 사랑에 빠진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아빠를 만나고 온 후 처음 웃었다.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꼬옥 잡았다. 아빠 손 같아 눈물 한 방울이 또 또르르 흘렀다. 눈물을 훔치며 본 하늘빛이 정말 파랗게 맑았다. 아빠,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아빠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나의 아빠께. 아빠, 저 승하예요. 저 며칠 동안 아팠어요. 이 아픔이 언제 아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웃었어요. 아빠가 아빠처럼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믿는 저 장승하, 슬픔을 이겨내고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마음먹었어요. 아빠가 떠난 사실이 아직 아프지만, 아빠를 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낸 영웅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아빠를 영웅으로 간직할게요. 자랑스러운 장준건 소방경의 아들 장승하가 되겠습니다. 안전!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 장승하 올림.

추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때문에 힘드셨을 엄마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4년 동안 애써주신 윤철 삼촌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아빠가 보고 싶으면 또 만나러 갈게요.

접수번호	180	제 목	나는 하트세이버
------	-----	-----	----------

“또 카레야?”

책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던 은찬이가 투덜댔다.

“아빠! 오늘 급식도 카레였단 말이야. 다른 거 먹고 싶어.”

가스레인지 앞에서 열심히 카레를 젓고 있던 아빠가 고개가 돌렸다.

“은찬아. 아빠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마트에 못 갔어. 내일은 반찬 가게에서 맛있는 것 좀 사 올게.”

아빠가 은찬이를 달래듯 말했다.

“야! 김은찬! 주는 대로 먹어!”

나는 어리광만 부리는 은찬이가 못마땅했다. 아빠는 아직 양복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퇴근하고 아직 옷도 못 갈아입은 거였다.

“치! 누나는 맨날 나만 미워해!”

은찬이가 부루퉁한 얼굴을 하고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난 것처럼 연기하지만, 사실 다른 꿈꿨이가 있다는 걸 나는 다 안다. 자기 방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려는 거였다.

나는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폈다. 아빠 거랑 내 것, 은찬이 것 이렇게 세 개의 밥그릇에 밥이 담겼다. 그리고 카레를 한 국자씩 퍼서 밥 위에 부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카레다. 나도 카레가 지겨울 때가 있지만 아빠가 할 줄 아는 요리가 몇 개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김은찬! 밥 먹어.”

나는 큰소리로 은찬이 이름을 불렀다.

“야! 빨리 안 와!”

나는 목소리로 닫혀있는 은찬이 방문을 두드려댔다.

“은지야. 여기 김치 있...”

김치를 썰어서 접시에 담던 아빠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아빠가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아빠가 쓰러진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나무토막이 쓰러지듯이 쿵 소리를 내며 부엌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고 만 거였다.

“아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빠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누나!”

내 비명에 놀랐는지 은찬이가 제 방에서 뛰어나왔다.

“누나! 아빠 왜 이래?”

“몰라! 어떡해. 어떡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아빠가 왜 이런지 알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카레를 젓고 김치를 썰었는데 말이다.

“누나! 고모한테 전화할까?”

은찬이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고모가 빨리 올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말이다.

“은지야. 엄마나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119로 신고해야 해. 고모나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늦어. 알았지?”

예전에 살던 집 벽지에는 엄마가 써 놓은 우리 집 주소도 적혀 있었다. 만약에 아빠가 출장 갔을 때 엄마가 아프면 119에 전화하고 우리 집 주소를 그대로 읽어 주면 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집 모든 스마트폰에 119 앱도 깔아놓았었다. 그렇게 하면 밖에서 엄마가 쓰러졌을 때 자동으로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 말이다.

“아니야. 119에 전화해야 해. 다른 데 전화하면 늦어.”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자동으로 내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은찬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얼른 버튼을 눌렀다. 통화음이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 내 심장은 백 미터 달리기를 스무 번은 한 것처럼 요동쳐댔다.

“119 상황실입니다.”

젊은 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숨이 꼴깍 넘어갔다.

“우리 아빠가 쓰러졌어요. 얼굴이 하얘요.”

은찬이가 전화기에 대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봐. 숨은 쉬시니?”

나는 소방관 언니가 말하는 대로 해봤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나는 은찬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숨을 안 쉬어요.”

“집에 다른 어른이 있니?”

“아니요. 저랑 누나밖에 없어요.”

은찬이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가득 들어있었다. 하지만 은찬이는 소매를 들어 눈물을 훔치면서도 우리 집 주소도 또박또박 알려줬다.

“애들아. 5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영상 통화로 전화할게.”

전화가 갑자기 끊기더니, 바로 영상 통화로 전화가 왔다. 목소리만 들리던 소방관 언니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애들아. 너희 아빠는 아무래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너희들 가슴 압박해 본 적 있니?”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었다. 그때, 소방관 아저씨 두 명이 우리 학교에 마네킹을 가져왔

었다.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은 세 명씩 돌아가면서 가슴 압박하는 연습을 했었다. 그때 나는 잘한다고 칭찬도 들었었다. 하지만 그때는 마네킹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이 그림을 보고 여기처럼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려. 그래. 맞아. 그렇게 깍지를 끼면 돼. 팔꿈치를 펴고, 팔에 체중을 실어서 빨리 누르는 거야.”

“애들아. 내가 숫자를 셀게. 서른 번 하고 입안에 숨을 불어넣는 거야.”

영상 통화로 소방관 언니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빠르게 숫자를 셨다. 나는 그 숫자에 맞춰 아빠 가슴을 압박했다. 은찬이는 그동안 아빠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헉! 헉!”

내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내 심장은 저 혼자서 마구 뛰었다.

“자! 한 세트 더!”

소방관 언니가 계속 숫자를 세면서 나를 응원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내 정신도 아득해졌다. 소방관 언니는 계속 숫자를 셨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했다.

“못하겠어요.”

이제는 팔에도 쥐가 나려고 했다. 팔이 빠질 것 같았다. 어깨와 손바닥도 저렸다. 무릎 꿇은 두 다리에 쥐가 났는지 장딴지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또 바닥을 짚은 무릎은 딱딱한 방바닥에 쓸려 피부가 까진 것 같았다. 단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스마트폰 화면의 소방관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했다.

“팔이... 헉헉... 힘이... 없어요.”

내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벌컥 올라왔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소방관 언니의 목소리는 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팔을 다시 아빠 가슴 위로 올렸다.

그때였다. 은찬이가 부엌에서 변기를 뚫는 데 쓰는 ‘뚫어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누나! 내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봤는데, 이걸로도 할 수 있대.”

그러면서 은찬이가 아빠 가슴에 뚫어뻥을 가져다 대고 힘껏 눌렀다. 내가 아빠 가슴을 눌렀을 때처럼 가슴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게 보였다.

“누나! 이제 내가 할게.”

이제는 은찬이가 나 대신 아빠 가슴을 눌렀다.



“구급대가 도착했대. 애들아! 현관문을 열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은찬이가 우리 집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 구급대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던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짜며 다시 가슴 압박을 했다.

“푸!”

아빠 입에서 공기가 나오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어...?”

나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나는 간신히 손가락을 들어 아빠 코끝에 대봤다. 따듯한 기운이 코에서 새어 나오는 게 느껴졌다.

“아빠가 숨을 쉬어요!”

나는 스마트폰 속 소방관 언니를 향해 고개를 들고 외쳤다.

“진짜? 정말 다행이다!”

영상 통화를 하던 소방관 언니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 단계 높아져 있었다. 아빠는 의식이 돌아오는지 눈을 아주 살짝 떴다.

“아빠! 정신이 들어?”

널뛰기를 하던 내 심장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네가 아빠를 살린 거야. 정말 잘했어!”

소방관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에요!”

맨발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 기다리던 은찬이가 누군가를 향해 외쳤다. 몇 초 뒤, TV에서 보던 것 같은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집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던 아빠 상태를 확인했다.

“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생했다. 어른들은 체구가 커서 어린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아빠 상태를 확인하고는 바퀴 달린 침대에 아빠를 눕혔다. 내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드디어 아빠가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나랑 은찬이랑 아빠는 엄마가 묻혀 있는 추모의 집에 갔다. 그곳에는 엄마 나무가 있다. 엄마 나무는 작은 명찰을 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저랑 은찬이랑 이것 받았어요.”

나는 소방서에서 받은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활짝 펴 보이며 말했다.

“우리가 아빠를 살렸다고 이 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알려준 대로 119에 먼저 전화해서 아빠를 살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나는 엄마 나무를 매만지며 말했다.

“엄마.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내가 지켜 줄 거야.”

은찬이도 앞니 빠진 얼굴로 씩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애들한테 잘 알려줘서, 나 살았어. 당신이랑 소방관들 덕분에야. 정말 고마워.”

아빠의 두 눈이 붉어지면서 물기가 고였다.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지.”

은찬이가 아빠를 재촉했다.

“그러자.”

아빠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앞으로 길게 뻗으며 나랑 은찬이, 아빠 그리고 엄마 나무가 모두 화면에 나오게 했다.

“자! 다들 손가락 하트.”

아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랑 은찬이는 양손 엄지와 검지를 서로 교차시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찍어요. 삼, 이, 일!”

나는 손가락 하트에 내 맘을 담아 하늘로 날려 보냈다. ‘아빠를 구해준 소방관 언니와 아저씨들, 그리고 119 전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다.

접수번호	190	제 목	소방꽃 아빠
------	-----	-----	--------

[속보입니다. 소동동 나라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안에 갇혀 있던 11세 어린이를 소방관이 구하다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인근 병원으로...]

그때 엄마 핸드폰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의 표정이 꼭 불이 난 듯 빨갳습니다. 엄마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석후야, 엄마 좀 나갔다 올게. 집에 있어.”

엄마는 동생 은후가 잘 자는지 보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석후는 멍하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라아파트는 학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석후 학교 친구들도 그곳에 삽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석후는 눈이 말뚱말뚱했습니다.

‘아빠는 아니겠지?’

석후는 아빠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빠는 소동동을 지키는 119 소방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 크게 사고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이가 선택한 일이에요…….”

“어휴, 남 구하다가 자기 목숨 잃게 생겼네. 식물인간으로 어떻게 산대요? 석후는 어찌고요!”

“그만 혀라. 일단 깨어나길 바라야제.”

석후의 큰아버지와 고모, 할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렸습니다. 석후는 혼자 아빠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아빠가 먼 지방으로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후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히 석후가 걱정하고 울까 봐 그랬다는 걸요.

“엄마, 저 안 울어요. 아빠에겐 우리가 필요해요.”

석후는 다짐했습니다. 아빠를 만나도 울지 않겠다고요. 꾀꾀하게 지내겠다고요. 엄마는 일도 해야 하고, 석후와 은후도 돌봐야 하고, 병원에서 간호도 해야 하니까요. 석후는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어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며칠째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겨울철 곰처럼 잠만 잤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석후는 엄마와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날 뉴스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석후는 아무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동생 은후를 데려왔습니다. 은후는 석후보다 한 살 어린 아홉 살입니다. 아빠의 병원생활이 늘어날수록 은후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은후가 매일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라고 칭얼댔거든요.

은후는 아빠와 함께 꽃을 만들고 싶다며 색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씻. 아빠 자고 있어서 같이 못 놀아.”

석후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 이과리 만들어 줘. 나는 꽃잎 만들게. 아빠한테 선물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석후는 녹색 색종이를 오렸습니다. 은후는 노란 색종이를 접었습니다.

석후가 색종이를 오리다가 아빠가 덮은 이불 위로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사라지고, 이불은 하얀 눈발이 되었습니다. 새싹 하나가 쑥 올라왔습니다.

“형! 아빠가 새싹이 됐어!”

석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식물로 변했어요!”

물을 뜨러 잠시 나갔다 돌아온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었니? 아빠는 식물인간이 아니야. 꼭 다시 일어날 거야.”

“엄마, 안 보여요? 여기 싹이 자랐잖아요!”

“석후야……. 은후야…….”

엄마는 석후와 은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석후는 오히려 엄마와 의사 선생님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은후야, 아빠가 새싹이 된 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왜?”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 같거든.”

“우리 눈에만? 가끔 요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은후는 잠들기 전에 요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정은 아주 작고, 물결 같은 날개를 펼쳐서 사뿐사뿐 날아다닙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나타나서 반짝이는 별빛을 뿌리고 가곤 했습니다.

“알았어, 형. 근데, 이건 무슨 꽃이 될까? 내가 만들려고 한 건 노란 꽃이었는데.”

은후가 색종이를 다 접어서 눈이 된 이불 위로 떨어뜨려 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녹지도 않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건 소방꽃이야.”

“소방꽃?”

“아빠가 불 끄는 일을 하잖아.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불이 꺼지겠지? 불이 다 꺼지면, 나중에 꽃이 필거야.”

석후는 엄마가 떠 놓은 물을 조금씩 뿌렸습니다.

“꽃이 피면 아빠가 깨어나는 거야?”

“응. 그럴지도 몰라.”

“얼른 피면 좋겠다.”

석후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정말로 꽃이 피면 아빠가 깨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석후는 매일 학교 마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주가 지나니 친척들도 문병이 뜸해졌습니다.

소방꽃은 날마다 조금씩 자랐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꽃을 언제 피울지도 모르고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봄이 올 날은 한참 멀었습니다.

‘맞아, 식물도 마음이 있다고 했어. 매일 사랑한다 말하고, 잘해주면 쑥쑥 큰다고 했어.’

석후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후와 엄마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말해줬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은후야, 네 차례야.”

“보고 싶어, 아빠!”

“엄마, 이제 엄마 차례예요.”

“석후 아빠, 수룡 씨. 오늘은 석후가 또 이상한 걸 해보라고 하네요. 며칠 전에는 식물이라고 하질 않나, 오늘은 사랑을 속삭이라고 하질 않나. 우리 애들 참 엉뚱하죠? 그래도 해볼게요. 어서 일어나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당신 웃는 모습이 그리워요.”

차례로 줄 서서 식물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반에서는 아이들이 스무 명이 넘으니 한마디 말만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후네 가족은 달랑 세 명뿐이라 다섯 번 더 차례를 돌기로 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어릴 때 꿈이 소방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냐고 물으니까, ‘장비 다 갖춰 입고, 불길 앞에서 거대한 대포를 쏘면서 불을 끄는데, 진짜 멋졌지. 영웅 같았어.’ 라고요.”

석후는 아빠의 꿈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영웅처럼 멋져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사람을 구하는 건 힘들었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테니까, 힘들어도 좋았어.’ 이렇게요. 아빠, 아빠는 이번에

도 소중한 걸 지켰어요. 아빠는 멋진 영웅이에요. 이제 네가 말해, 은후야.”

“응. 아빠. 기억나? 소동 공원에서 어떤 누나가 막 울고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고양이 구했을 때 진짜 멋있었어!”

은후는 아빠가 탑 안에 갇힌 고양이를 구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정도 바빠서 오지 않는 밤에 아빠가 들려준 첫 이야기였거든요.

“나는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었어. 아빠, 이번에는 내가 해줄게.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매일 매일!”

은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켰습니다.

엄마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룡씨.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지 알아.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알지. 이렇게 다친 적이 없어서, 그동안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엄마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도 소방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석후와 은후, 엄마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일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석후는 마지막에 꼭 소방꽃에 물을 뿌리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소방꽃은 점점 자라나 곁가지에서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아빠가 말해줬던 소방활동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놀았던 일도 들려줬습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소방꽃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곧 활짝 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석후와 은후는 기대했습니다. 아빠가 곧 깨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석후가 사진을 소방꽃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한테 편지가 왔어요. 구해준 고양이 주인한테서 온 편지예요. 고양이도 ‘냐옹냐옹 일어나라옹’ 하고 울었대요. 또, 아빠가 구해준 트럭 아저씨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나라아파트에 사는 아이한테서도요. 모두 아빠가 깨어날 거래요. 보이죠?”

석후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란 꽃이 기지개를 피듯 활짝 피었습니다.

“와!”

석후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꽃은 색종이 꽃으로 변했고 그 자리에 아빠가 누워있었습니다.

아빠가 눈을 떴습니다. 석후는 기뻐합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를 끌어안고 영영 울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셨습니다.

“애들아, 여보. 고마워. 매일 매일 내 곁에서 속삭여줘서. 움직일 순 없었지만, 나 다 들었어.”

엄마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색종이 꽃이 완성됐어!”

“아빠, 이거 우리가 만든 선물이야.”

석후는 아빠의 환자복 주머니에 소방꽃을 넣었습니다. 아빠는 그 뒤로 무척 빠른 속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친척들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꼭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디 소방관이 너 하나뿐이라. 그만 관둬라.”

“어머니. 단지 일이라서 한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럼, 또 하겠다고요? 그 위험한 일을?”

고모가 툭 쏘아붙였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영웅이 다시 깨어났으니, 세상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걸요!”

석후는 아빠를 난처한 상황에서 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방관 아빠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요. 아빠만 좋다면요!”

친척들이 황당한 얼굴로 석후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석후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구한 아이가요, 이현호. 석후 학교 친구라네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더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조기구에 몸을 기대고 다리에 힘을 쥐서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처럼요.

석후와 은후는 언제나처럼 아빠 옆에서 응원합니다. 아빠가 빙그레 웃습니다. 소방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접수번호	194	제 목	나나 탐정단과 짱다크
------	-----	-----	-------------

역시! 오늘도 운동공원엔 그 사람이 있다. 벌써 보름째다.

우리 '나나 탐정단'은 그를 '짱다크'라고 부른다. '완전 다크하다'는 의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옷만 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얼 하는 사람인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는지도 베일에 싸여있다.

"에나야, 그러다 들키겠어!"

나희가 커다란 나무 뒤로 나를 잡아끌었다. 나는 대답 대신 손바닥만 한 공책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보다 이것 좀 봐줘. 내가 만든 '나나 탐정단 추리 노트!'"

나희와 나는 '셜록 홈즈' 영화에 푹 빠져있다. 조그만 단서로 복잡한 사건을 추리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아예 어린이 탐정단까지 만들었다. 우리 둘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나나'란 활동명으로. 우리 동네 수상한 일이나 사람을 찾아 추리하는 게 주된 임무다.

"짱다크에 대해 추리한 걸 여기에 정리해보자고."

나는 조심히 주위를 살피며 노트 맨 앞장을 폈다.

첫 번째 추리 : 짱다크 = 저지

그러곤 눈썹에 짝 힘을 주고 이렇게 추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여름인데도 검은색 긴 팔, 긴바지만 입고 있잖아. 매일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건, 다른 옷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자 나희도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 맞아! 게다가 하루 몇 시간씩 공원 벤치에 앉아 있잖아. 다 큰 어른인데 회사도 안 가고. 분명 돈도 못 벌고, 갈 데도 없는 거야."

나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얀 반소매 티를 꺼냈다. 아빠가 잘 입지 않는, 어른 남자용 티셔츠다. 새것은 아니지만 꽤 깔끔했다. 나는 씨익 웃으며 검지로 짱다크를 가리켰다.

"이거 갖다주려고."

그러자 나희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뭐? 안 돼! 위험한 사람이면 어찌려고 그래?"

내 생각은 달랐다. 우린 그에게 친절하게 굴, 아니 구는 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짱다크의 정체를 밝혀낼 확실한 단서를 얻는 거다.

"짱다크가 거지라면 이걸 덤석 받을 거야! 받지 않는다면 진짜 정체는 따로 있는 거고."

나는 성큼성큼 짱다크를 향해 걸었다. 내 고집을 꺾지 못한 나희도 종종거리며 쫓아왔다.

"저기, 아저씨! 이거 가지실래요?"



짱다크가 나를 흘긋 쳐다봤다. 이걸 왜 받아야 하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더워 보이셔서요. 여름옷 살 돈도 없으신 거죠?"

등 뒤로 식은땀이 쪼록 흘렀다. 용감한 척했지만, 나희 말대로 짱다크가 위험한 사람일까 봐 걱정됐다. 하지만 웬걸, 짱다크는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푸하하! 고맙다, 애들아!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산 건 아니란다. 게다가 지금 내가 이걸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미안하지만 마음만 받으마."

짱다크가 다시 반소매 티를 돌려주려 팔을 쪽 내밀었다. 덩달아 그의 긴 팔 티셔츠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

‘헉! 저, 저게 뭐지?’

그 순간, 우린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짱다크의 피부가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다. 구겨진 종이처럼 우글우글 주름이 쳐 있고, 피가 맺힌 듯 새빨갰다. 덕지덕지 마른 진물이 붙어있기도 했고.

"그, 그럼 저흰 이만 가볼게요. 아, 안녕히 계세요!"

결국 대충 허리 숙여 인사하고, 허둥지둥 나무 뒤로 돌아왔다. 나희는 손끝을 바르르 떨며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짱다크는 사실 거지가 아니라..."

나는 서둘러 다시 추리 노트를 꺼냈다. 나희의 추리를 받아 적으려고 말이다.

"...바로 좀비야!"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정성스레 노트 위에 글씨를 새겼다.

두 번째 추리 : 짱다크 = 좀비

나희는 콧구멍에서 김을 쉼쉼 뿜으며 열심히 설명했다.

"내가 요즘 자주 보는 '진격의 좀비' 만화책 알지? 거기 나온 좀비 피부가 방금 짱다크랑 완전 똑같았어! 그리고 어제 학원가다 짱다크를 마주쳤는데 말이야..."

나희는 짱다크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떠돌이 개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무서웠나?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콧잔등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호, 혹시 사람 대신 개를 잡아먹으려고 한 건가? 호아!"

그때였다. 짱다크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한껏 움츠렸다. 짱다크는 느적느적 걸어 어디론가 향했다. 나는 두 눈을 반짝이며 나희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좀비가 무섭대도, '나나 탐정단'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어서 쫓아가자!"

짱다크는 공원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향했다. 우리는 들키지 않게 열 걸음쯤 떨어져 짱다크를 뒤쫓았다.

"으악!"

골목을 돌려는 순간, 눈앞에 뿌연 연기가 펼쳐졌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전봇대 근처에 앉아 뽁뽁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다. 서둘러 두 팔로 연기를 걷어냈다. 이대로 짱다크를 놓칠 순 없었으니까!

어라? 골목을 돌아 짱다크가 길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어떤 집을 유심히 노려보고 있었다.

"저기 서서 뭐 하는 거지?"

우리도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짱다크를 가만히 살폈다. 짱다크는 "후유!" 크게 한숨을 쉬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멈춰 섰다.

"뭐지? 이번엔 자동차야?"

골목길에 쪽 늘어선 자동차 하나하나를 허리 숙여 살펴보는 거다. 이따금 주위를 훑훑 둘러보기도 하면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켜졌다. 서둘러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써넣었다.

세 번째 추리 : 짱다크 = 도둑

나는 연필 뒤꽂무니를 잘근잘근 씹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짱다크는 도둑에 더 가까워. 골목 여기저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잖아. 밤에 다시 와서 도둑질하려는 게 아닐까? 몰래 빈집에 쳐들어가거나, 자동차 안에 있는 비싼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으악! 부, 불이야, 불!"

아까 지나 온 골목 근처에서 비명이 들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부리나케 그쪽으로 달려갔다.

조금 전 지났던 전봇대 근처, 담배 피우던 할아버지가 있던 곳이다. 주위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가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다. 나는 단박에 불이 난 이유를 추리할 수 있었다.

"꼬지 않은 담배꽂초에서 불뚱이 튼 거야!"

이런! 불은 잣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근처에 있던 나무 덩불에까지 번졌다. 여러 사람이 몰려왔지만 다들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만큼 불길이 세져 버린 거다.

그때, 익숙한 모습의 누군가가 우리 앞을 막아섰다.

"여러분,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떨어지세요!"

다름 아닌 짱다크였다! 짱다크 손에는 어느새 소화기가 들려있었다. 그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안전핀을 뽑고 하얀 액체를 뿌렸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 불 속에서 "애오옹" 소리가 들렸다. 뼈죽 튀어나온 꼬리를 보니, 상자 더미 속에 길고양이가 갇혀 있는 듯했다. 짱다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고 있던 긴 팔 티셔츠를 벗었다. 그걸 남은 불씨 위로 탁탁 내리치곤 맨손으로 고양이를 꺼냈다.

"으으, 저거 좀 봐!"

그걸 본 나희가 눈을 가렸다. 짱다크의 팔과 등이, 좀비처럼 징그러운 상처로 가득했으니까.

짱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르고, 입에 '후! 후!'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마침내 고양이 몸이 꿈틀거렸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도 점차 잦아들었다. 주위 사람들이 짱다크를 향해 크게 손뼉을 쳤다. 나는 허둥지둥 짱다크에게 달려가 흰색 반소매 티를 꺼내 건넸다.

"아저씨! 이거라도 입으세요. 그런데…."

자꾸만 눈길이 짱다크의 상처로 향했다. 짱다크는 뒤통수를 벽벽 긁으며 멍쩍게 웃었다.

"좀 징그럽지? 사실 난 소방관이란다. 큰불을 끄다가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잠시 휴직 중이야."

헉! 나는 입을 짝 벌린 채 나희를 돌아보았다. 나희도 깜짝 놀랐는지 얼음이 되어 있었다. 짱다크는 반소매 티에 머리를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다.

"나에겐 자랑스러운 훈장이나 다름없단다. 그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검은색 긴 팔, 긴바지만 입었지. 상처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고개가 계속 갸웃거려졌다. 짱다크가 소방관이라면, 그동안 보인 그의 수상한 행동은 대체 뭐였을까?

"그럼 어제 왜 떠돌이 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늘 동네 여기저기를 막 훑쳐본 건요? 저는 아저씨가 좀비나 도둑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짱다크는 당황한 듯 두 팔을 크게 내저었다.

"뭐? 그건 노려본 게 아니라 걱정돼서 쳐다본 거야. 소방관으로 일할 때 길에서 굶어 죽는 동물들을 많이 봤거든. 또 동네를 걷다 보니 위험한 것들이 왜 그리 많아 보이는지…. 지붕 밑에 자그마한 말벌집이 붙어 있질 않나, 골목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놓질 않나. 잘못하다 사람이 쏘이진 않을까, 소방차가 못 들어오진 않을까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 뭐, 이게 다 직업병이지! 언제나 동네가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 하하!"

어느새 짱다크 곁으로 다가온 나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그냥 소방관 그만두면 안 돼요? 몸도 이렇게 아프고, 주변 걱정하느라 잘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자 짱다크가 나희 머리를 쓰다듬으며 싱긋 웃었다.

"무슨 소리! 화상 치료만 끝나면 얼른 다시 복귀할 거란다. 그래야 내가 직접 우리 동네 위험한 일들을 다 처리해줄 거 아니냐. 가만히 보고만 있으려니 좀이 쭈서서 말이지."

그 순간, 우리 '나나 탐정단'의 눈에 반짝 별이 스쳤다. 짱다크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위험한 일을, 용감하게 나서 해결해주는 소방관이라니. 게다가 시민들을 먼저 걱정하는 희생정신에 가슴이 찡해졌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느껴질 정도로.

"와아, 짱다크가 설록 홈즈보다 백 배, 만 배 더 멋진데?"

그날 저녁, 우리 둘은 내 방에 앉아 '나나 탐정단 추리 노트'를 고쳐 썼다.

*최종 결론 : 짱다크 = 소방관. 짱 멋짐!*

아니, 아예 표지까지 바꿔버렸다. 바로 이렇게.

*나나 소방단 활동 노트*

이제부터 우린 '나나 탐정단'이 아니라 '나나 소방단'이다. 우리 동네 위험한 일을 먼저 처리해주는, 아주 아주 멋진 소방단!

아 참! 내일은 짱다크에게 보낼 초대장도 쓸 생각이다. 다시 소방관으로 복직할 때까지, 우리 '나나 소방단'의 멋진 멘토가 되어달라고 말이다!